



여자프로농구 6개 구단 감독들이 10일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2018 WKBL 외국인선수 선발회'를 통해 새 시즌 팀 전력의 핵심이 될 단추를 끼었다. 왼쪽부터 삼성생명 임근배, 우리은행 위성우, 신한은행 신기성, KEB하나은행 이환우, KDB생명 김영주, KB스타즈 안덕수 감독.



쑤튼 3순위 '달라진 위상'

지난 시즌 대체선수로 하나은행서 활약
신한은행 지명에 우리은행은 작전 변경

지난 시즌 대체선수로 KEB하나은행에서 썬 포워드 카릴라 쑤튼(25·185cm)이 '2017~2018 WKBL 외국인선수 선발회'에서 여러 팀의 관심을 받았다. 쑤튼은 10일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새 시즌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결국 1라운드 3순위로 신한은행의 선택을 받았다. 신한은행 신기성 감독은 "대체적으로 선발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외에도 쑤튼을 구상에 포함시켰던 팀들은 많았다.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쑤튼과 스트릭렌 중 한 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쑤튼이 앞에서 지명을 받아 스트릭렌을 뺏아줬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몇몇 팀도 쑤튼이 자신들의 지명순서까지 남아있을 경우 낙점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쑤튼이 WKBL 감독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운동능력과 성실함이었다. 쑤튼은 외곽슛에는 약점이 있지만, 탁월한 스피드와 파워를 앞세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다. 삼성생명 엘리스 토마스(25·185cm)처럼 속공 가담 능력이 뛰어나고, 1대1 돌파를 통해 손쉽게 2득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또한 코트에 나설 때마다 한결같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 감독들에게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쑤튼은 지난해까지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한 시즌 전체를 소화한 적이 없었지만, 현재는 WNBA 댈러스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 시즌 개막 직전 대체선수로 WKBL과 인연을 맺은 뒤 KEB하나은행 소속으로 35경기에 출전해 평균 20분 정도를 뛰고도 14.91점·8.23리바운드·1.14어시스트의 양호한 성적표를 쥐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하나銀, 해리스 1순위 지명 '센터 가뭄 속 진주'

최대어 돌슨·보예트 등 7명 불참 현장 술렁
2순위 KDB생명은 가드 포지션 로이드 선택
디펜딩챔프 우리銀, WKBL 경력자 2인 뽑아

'2017~2018 WKBL 외국인선수 선발회'가 10일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2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삼성생명과 재계약한 엘리스 토마스(25·185cm)를 제외한 11명의 선수를 뽑기 위해 6개 구단 코칭스태프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드래프트 시작에 앞서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최대어로 꼽혔던 스테파니 돌슨(25·196cm), 이마이 보예트(23·204cm) 등 총 7명이 이날 오전 8시 이전에 선발회 참가 의사를 철회했다. 지명이 유력시됐던 센터 자원이 갑자기 불참함에 따라 각 팀이 드래프트 전략을 수정하면서 현장은 분주해졌다.

이런 가운데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KEB하나은행은 센터 이사벨 해리스(24·192cm)

구단	1라운드			2라운드		
	순위	선수(포지션)	키(cm)	순위	선수(포지션)	키(cm)
삼성생명	재계약	엘리스 토마스(F)	185	11순위	케일라 알렉산더(C)	195
KEB하나은행	1순위	이사벨 해리스(C)	192	10순위	자즈몬 파트미(G)	188
KDB생명	2순위	주얼 로이드(G)	178	9순위	산테 블랙(F/C)	195
신한은행	3순위	카릴라 쑤튼(F)	185	8순위	르산다 그레이(F)	188
KB스타즈	4순위	다미리스 단타스(F/C)	193	7순위	모니크 커리(G)	182
우리은행	5순위	셰키나 스트릭렌(F)	188	6순위	티아나 하킨스(F)	192

을 낙점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샌안토니오 소속의 해리스는 수줍은 센터다. KEB하나은행 이환우 감독은 "해리스가 대학 시절 팀을 정상에 올려놓으며 최우수선수(MVP)까지 받은 경력이 있다. 그만큼 인성이 좋은 선수라고 봤다"고 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팀을 하나로 묶는 선수구성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해리스가 적합하다고 봤다. 아주 만족스럽다"며 환하게 웃었다.

2순위로 선발에 나선 KDB생명은 득점력이

매우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드 주얼 로이드(24·178cm)를 뽑았다. 국내 센터가 강한 팀에서 로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KDB생명 김영주 감독은 1라운드에서 과감하게 먼저 가드를 지명했다. 국내 센터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KDB생명이 예상 밖의 선택을 하면서 후순위 팀들의 구상은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

신한은행은 3순위로 WKBL 경력자인 카릴라 쑤튼(25·185cm)을 지명했고, 4순위 KB스

타즈는 보기 드물게 브라질 국적인 다미리스 단타스(25·193cm)의 이름을 불렀다. 단타스는 지난 수년간 WKBL 선발회에 참가했으나, 통역 등의 문제로 각 팀이 선택을 주저했던 선수로 알려져 있다. 기량 면에선 확실하게 인정받은 선수다.

지난 시즌까지 통합 5연패를 달성한 우리은행은 2015~2016시즌을 함께한 셰키나 스트릭렌(27·188cm)이라는 안전한 카드를 뽑아들었다. 우리은행은 2라운드에서도 WKBL 경력자인 티아나 하킨스(26·192cm)를 낙점하며 모험수를 두지 않았다. 토마스와 재계약함에 따라 전체 11순위로 2라운드 지명에 나선 삼성생명은 195cm의 장신 센터 케일라 알렉산더(26)를 호명했다. 포스트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WKBL 경력자는 총 4명이었다. 새 시즌부터 매 경기 3쿼터에는 외국인 선수 2명의 동반출전이 가능해진 만큼 각 팀은 포지션을 안배해 지명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골프

9언더파 몰아친 김세영, '손베리 클래식' 아쉬운 3위

(4라운드)

1위 캐서린 커크에 2타차…시즌 2승 불발
US여자오픈 앞두고 2회 연속 톱5 공정적

김세영(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손베리클래식(총상금 200만달러)에서 아쉽게 시즌 2승 사냥에 실패했다.

김세영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의 손베리리크리크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7개를 묶어 9언더파 63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함께 20언더파 268타까지 타수를 줄였지만, 22언더파 266타를 적어낸 캐서린 커크(호주)에 2타 뒤진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아슬레이 부하이(남아공·21언더파 267타)가 2위에 올랐다.

대회 첫날부터 7언더파를 몰아치며 우승 경쟁에 뛰어든 김세영으로선 2라운드 경기가 아쉬웠다. 버디 3개를 잡아냈지만, 더블보기 1개와 보기 2개를 적어내면서 1타를 잃었다. 3라운드에서 다시 5타를 줄이며 추격에 나섰지만, 선두로 나선 커크와 9타차까지 벌어져 역전우승이 쉽지 않았다.

US여자오픈을 앞두고 2개 대회 연속 톱5 진입에 성공한 사실은 긍정적이다. 김세영은 5월 로레나오초아메지플레이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킹스밀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5위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불발 챔피언십 컷 탈락, 슬라이트클래식 기권, 마이어클래식 공동 22위로 주춤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던 가운데, 지난주 시즌 2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오르며 반등의 발판을 확보했다.

13일부터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내셔널골프장에서 펼쳐질 US여자오픈은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로 최고 상금을 자랑한다. 총상금 500만달러(약 57억5000만원), 우승상금 90만달러(약 10억3500만원)다.

2015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약하며 통산



김세영이 10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손베리리크리크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손베리클래식 마지막 날 9타를 줄이는 몰아치기로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13일 개막하는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상승세를 타 개인 첫 메이저대회 우승 전망을 밝게 했다.

사진제공 | PGA of America

6승을 쟁긴 김세영은 아직 메이저대회 우승이 없다. 국내서 뛰던 201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랭킹 상위 자격으로 ANA 인스퍼레이션의 전신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통해 처음 메이저대회를 경험했다. 당시 성적은 공동 61위. 2015년 정식으로 LPGA 회원이 된 뒤 ANA 인스퍼레이션 공동 4위, KPMG 위민스PGA 챔피언십 준우승, 에비앙 챔피언십 5위에 올랐

으나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US여자오픈에는 통산 3차례 출전해 지난해 공동 26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다.

US여자오픈은 전통적으로 긴 전장과 러프, 빠른 그린으로 악명이 높다. 김세영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몰아치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US여자오픈에서 선전이 기대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스타코치 트릭스, 국내 지도자 티칭프로 교육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의 스윙코치였던 이언 트릭스(65·호주)가 국내 골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진 골프를 전파했다.

트릭스는 아시아골프연맹(ASIAGA)과 호주프로골프협회(호주 PGA)의 공동주관으로 5일 경기도 화성 라비둘리조트에서 열린 티칭프로 세미나에서 골프스윙과 골프클럽 피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의를 했다.

트릭스는 전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애덤 스콧(호주)의 주니어 시절 스승으로 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을 키워냈다. 1박2일간의 이번 세미나에는 호주 PGA에서 티칭프로들의 교육담당 매니저로 활동 중인 닉 빌라스키, 제프 스튜어트도 동참해 이론과 실습을 아우른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스튜어트 매니저는 "교육에 참가한 한국 골프 지도자들의 열정이 뜨거웠고, 수준도 높았다. 특히 이해력이 높아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질문을 통해 배워 나가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아시아골프연맹(ASIAGA)과 호주프로골프협회(호주 PGA)의 공동주관으로 5일 화성 라비둘리조트에서 열린 티칭프로 세미나에 참석한 이언 트릭스 스윙코치와 호주 PGA 교육담당 매니저 제프 스튜어트, 닉 빌라스키(오른쪽부터).

사진제공 | ASIAGA

국내서 호주 PGA의 티칭프로 교육이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호 ASIAGA 본부장은 "국내에선 체계적인 레슨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많지 않다. 호주 PGA와의 교류를 통해 매년 1~2회씩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14세 태국소녀, 유럽 프로골프대회 최연소 우승

태국의 아마추어여자골퍼 아티야 티티쿨이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 치웠다.

티티쿨은 9일 태국 파타야의 피닉스골드골프장(파72)에서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LET) 투어 타이랜드 챔피언십(총상금 30만유로)에서 합계 5언더파 283타로 우승했다. 이날로 만 14세 4개월 19일이 된 티티쿨은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012년 호주여자프로골프 투어 뉴사우스웨일스오픈에서 작성한 종전 여자프로골프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만 14세 9개월 5일)을 약 5개월 단축했다. 또 리디아 고가 2013년 뉴질랜드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세운 LET 투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인 15세 9개월 17일도 약 1년 5개월 앞당겼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은 2012년 캐나다여자오픈에서 리디아 고가 세운 15세 4개월 2일이다. 티티쿨은 올 2월 LPGA 투어 혼다타일랜드에 출전해 공동 37위에 올라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남자프로골프에선 2013년 아세안 PGA 투어 싱하후아힌오픈에서 파차랏 콩앗마이(태국)가 세운 14세 2개월 19일이 최연소 우승 기록이다. 당시 콩앗마이는 태국 출신으로 아시안 투어와 유러피언 투어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롬 미사왓을 꺾고 우승했다. 아세안 PGA 투어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투어다.

주영로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